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 형상화 방식 연구

— 김송 『永遠히 사는 것』, 박영준 『愛情의 溪谷』,
홍성유 『悲劇은 없다』를 중심으로 —

장미영*

1. 머리말
2. 과장된 이념의 대결, 전쟁의 르포르타주
3. 이념의 윤리적 해석, 전쟁의 추상화
4. 이념의 초월과 휴머니즘적 타협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1950년대 한국문학 지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문장편소설 중 한국전쟁을 전경화 하여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송 『永遠히 사는 것』(〈대구매일신문〉 1951. 9.1~12.8 연재), 박영준 『愛情의 溪谷』(〈대구매일신문〉 1952. 3.1~7.17 연재), 홍성유 『悲劇은 없다』(〈한국일보〉 1957. 5.7~12.2 연재)를 중심으로 전쟁 담론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지배이데올로기화 과정을 밝히고, 어떻게 작가의식과 연동하여 형상화되는 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소설의 경우 국가권력과 결탁한 신문기업의 성격상 지배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영향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란 특수상황과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쟁을 북의 도발로 규정

*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위원회 강사

한 이승만 정권은 공론 장으로서 신문을 활용하여 전쟁에 관한 담론형성을 조정하였다.

이 세 작품에 드러난 전쟁문학으로서 특성은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그들의 비극이 전쟁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양한 인물의 희생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군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인물은 오빠, 교사, 교수, 재건에 앞장 서는 인물 등으로 그들은 발언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설득적이고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적군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묘사되어 독자 대중에게 공감과 반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물의 경우 전쟁을 경험한 후 남녀 간 사랑과 개인적 차원의 안위추구에서 인류애적 사랑과 국가 재건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가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들 여성을 통해 발견되는 휴머니즘은 당시 정치적 기획과 맞물려 국가재건을 위한 계몽 구호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신문소설이라는 매체적 특성은 시의성의 측면에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다루어 당시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불안, 이데올로기 갈등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사의 계몽성은 익숙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과 대화방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창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토론과 학습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통해 상황에 맞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청춘남녀의 애정의 갈등을 기본 서사로 삼아 대중의 흥미와 몰입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연성의 남발, 인과응보 식 결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는 죽음으로 처리하는 안이한 결말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발발 혹은 전쟁 자체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본질적 폭력성을 외면한 채 적의 비윤리적, 비인간적 현상에 집중하여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시키는 것은 신문소설의 미학적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주제어 : 1950년대 신문장편소설, 반공이데올로기, 전쟁, 전쟁문학, 공론 장, 신문매체, 통속성, 휴머니즘)

1. 머리 말

한국전쟁¹⁾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장 이었다. 일본식민통치에 이은 제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분할 통치와 외부세력이 개입되면서 국제전의 대리양상을 띠게²⁾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겪어내야 했던 내부적 모순을 해소하지 못한 채³⁾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1) 1950년 6월25일 발발한 전쟁을 두고 6·25동란, 6·25전쟁, 6·25한국전쟁, 한국동란, 한국전쟁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회역사학계에서 공식화 하고 있는 명칭인 '한국전쟁'을 쓰겠다.

2) 한국전쟁의 성격에 관련하여 강정구는 '전쟁주체를 중심으로 본 한국전쟁은 외세와 외세의존 국내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족자주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민족해방전쟁 또는 내전의 형태이고, 외세를 중심으로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자본주의 중주국과 사회주의 준중주국 사이의 진영전쟁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전쟁규모나 전투행위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국지전, 전면전, 제한전, 확대전, 교착전쟁 등 다양한 외형을 특징으로 한다고 분류한다. (강정구,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통권 48호, 2000, 가을호, 231~232쪽.)

3) 김동춘은 이데올로기의 대결구도를 "8·15해방 직후 형성되었던 민족/반민족의 대립구조가 소멸하고, 계급모순이 진영 간의 모순과 중첩됨으로써 국내의 지주와 농민의 대결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의 사주를 받는다고 간주된'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진영

두 개의 체제로 갈라서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선택된 이데올로기는 문학에서도 분열적으로 그려졌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과 관료조직, 자본가 계급을 장악하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반공이데올로기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 된 전후에도 이를 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전쟁 이후에는 반공의 이름으로 부역자처벌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정치상황은 문학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작가 스스로 부역활동 여부, 한국전쟁 발발 후 도강파와 잔류파 등으로 나뉘어 입장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엄격한 자기 검열과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을 강요받게 되었다⁵⁾. 특히 신문소설의 경우 국가권력과 결탁한 신문기업의 성격상 직접적인 영향관계⁶⁾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란 특수상

의 수호자인 우익파의 대결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기형화 되었다"고 지적한다.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전쟁과 사회변동』, 풀빛, 1992.)

- 4)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은 해방직후부터 찾을 수 있으며 당시 이승만 정권은 민족주의라는 대중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공산주의를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분열, 골육상쟁, 파괴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선전·선동하였다. (김정,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 『역사연구』 제7호, 2000, 111~147쪽 참조.)
- 5) 이와 관련해서 최강민은 당시 문인들의 상황을 “중군작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전시문학은 전쟁의 참상과 북한 공산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보고문학의 형태를 띤다. 북한의 진군과 함께 서울에 온 좌파 문인들은 잔류문인들을 선택해 공산정권에 협력하도록 한다. (중략) 이것은 한강을 건너 국군 진영에 합류한 도강파와 그렇지 못한 잔류파 문인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낳게 한다. (중략) 전쟁은 적과 아군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을 요구하며 중간지대를 소멸시킨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당시 문인이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강조한다. (최강민, 『서설: 문학제도와 정전의 계보학적 지형도 -해방 이후부터 1970년까지』, 문학과 비평연구회 편,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21~23쪽.)
- 6) 1950년대 한국신문기업의 물질적 토대는 국가에 의한 원조자금의 특혜용자로 자본을 축적하고, 신문용지의 구입비용과 윤전기 등 시설구입비용을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황과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전쟁을 북의 도발로 규정한 이승만정권의 입장은 공론 장으로서 신문을 통해 전쟁에 관한 담론형성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좌우대립, 민족해방, 계급갈등의 틀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근대화 혹은 한반도에서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⁷⁾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이론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호명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 두 개의 정부가 수립, 정착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개의 체제로 분리된 결정적 계기가 한국전쟁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격동기에 신문이라는 언론매체와 문학이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조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사실이다.

신문소설이 사회문화적 세태를 반영하는 시의성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대적 공감을 유도하였다고 할 때, '전쟁'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중심 소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된 신문소설 중 '전쟁'을 전경화 하여 다룬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쟁 발발 후 시간적 거리 유지가 어려웠다는 시기적 특수성을 전제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숫자이다. 당시 신문소설에 다뤄진 '전쟁'은 대중독자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작품 속에 투영된 작가의 '전쟁'에 대한 시대적 진단은 어떻게 부합되고 분열하는지 밝히는 것은 당시 지

있었다. 한국신문기업의 국가권력에 경제적 종속관계는 신문소설의 대사회적 영향력 행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성격에 관한 연구』, 『원우논집』 제16집 1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1989, 227쪽)

7) 이와 관련하여 김동춘은 '한국전후를 국가형성기로 규정하고 전쟁을 통한 국가주의의 형성, 국민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적 성격으로서의 한국전쟁, 전쟁을 통한 국가의 폭력 독점, 학살 과정 등에서 나타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2, 45-53쪽을 참고.

배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내면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1950년 6월25일 전쟁 발발 이후 1950년대 문학적 지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문장편소설 중 한국전쟁을 소재나 재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닌 전경화 하여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송 『永遠히 사는 것』(〈대구매일신문〉 1951. 9.1~12.8 연재), 박영준 『愛情의 溪谷』(〈대구매일신문〉 1952. 3.1~7.17 연재), 홍성유 『悲劇은 없다』(〈한국일보〉 1957. 5.7~12.2 연재)를 중심⁸⁾으로 전쟁 담론을 통한 반공이데올로기⁹⁾의 지배이데올로기화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작가의식과 연동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적 함의로 수렴되고 있는 지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는 전쟁의 상처와 이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는 문학적 특질을 공유하는 시기이다. 전쟁기 한국문학은 전쟁으로 인해 문학사적으로 불모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는 발표 지면의 축소는 물론 절대적인 작품 수의 양적 감소를 포함한다. 전쟁기 동안 문예면이 없는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 전쟁기 동안 문학 활동은 종군 작가단에 소속되어 전쟁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고발하거나 전쟁을 고

8) 본고에서는 신문연재 원본을 텍스트로 삼지 않고 단행본을 기본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원본의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과 연재 후 단행본 발행에 시차가 적어 내용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다만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의 경우 연재본과 단행본의 결말이 다른데 이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각주처리 하였다.

9) 한국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는 특정 영역의 기능을 넘어서서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신습속(mentality)에 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특정 이념영역을 넘어서서 분단국가의 수립을 이념적으로 정당화 하려는 분단국가주의로서, 그리고 종속적인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체제를 확대·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동의와 억압을 동원하는 국가동원주의로서 기능해 왔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는 그 성격상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적이며 강제적이고, 침투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18, 1992, 139~140쪽)

취하는 반공텍스트, 작가 개인이 경험한 전쟁에 관한 체험담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세 작품은 시간적으로 한국전쟁을 보는 폭넓은 시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관한 각각의 작가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식은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과 직·간접적으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굴절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쟁으로 작가를 포함한 국민 모두는 양자택일적 이데올로기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작가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보다는 상황논리를 따라야 했다. 특히 이북출신 월남 작가의 경우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승만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 재생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은 작가의 전쟁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규정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 시기 창작된 다른 작품보다 '전쟁'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950년대 전쟁기를 포함 한 전후 소설에 그려진 전쟁은 단편의 경우 전쟁 상황, 전쟁의 비극적 국면, 전쟁 체험담, 전·후방의 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같은 전쟁의 전모를 드러내기 보다는 단면을 포착하여 전쟁의 폭력성, 비극성, 윤리의식의 붕괴를 폭로한다. 이와 달리 장편의 경우 일정한 시간적 경과를 통해 전쟁의 발발과 참상을 드러내고, 전쟁을 증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증언의 형식은 전쟁을 단순히 시간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경험적 구체성을 살리고 팝진성을 높인다. 한국전쟁에 대한 증언은 사실을 기록하고, 전쟁 발발 원인과 피해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의 정치상황과도 연계되어 구조화 되고 있다. 전쟁의 의미와 발발 주체를 규정하는 문제는 적과 아군을 가르는 기

준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종전 후 국가 재건의 바탕이 되는 국가이야기¹⁰⁾의 생산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문소설이라는 매체적 특성상 대중성 확보라는 공통적 요구와 사회적 공론 장으로서 지면을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는 전쟁에 대한 함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문학외적 요구와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휴전협정 이후 쏟아져 나온 전후소설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서술과 연속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전후 신문소설에 형성된 전쟁 담론을 통해 문학 장으로서 신문의 역할과 당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산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1950년대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묘사된 전쟁의 참상, 생명의식, 이데올로기의 재현 방식과 차이를 보일 것이며 신문소설의 특성이 드러날 것이다.

2. 과장된 이념의 대결, 전쟁의 르포르타주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¹¹⁾

1950년대는 해방정국을 거쳐 전쟁이라는 급박한 정치적 변동을 겪고,

10) 국가이야기 생산에 대하여 유입하는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남한사회에서 창출된 국가이야기는 전쟁체험과 반공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배타적인 민족의 범주를 구성하는 한편 균질화 된 국민을 만들어내면서 국가주의를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유입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57쪽)

11) 신문연재 ‘작가의 말’에서 “1950년 추운 겨울 날 나는 청주에서 보은 땅으로 향해 내려가는 피난민 군중 속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절름발이로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녹았다 얼어붙은 산속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부축하는 처녀가 있어 나의 안광 속에 아주 인상적인 영상으로 비쳤던 것이다. “탁류 속을 밀리는 인간상을 창조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슬픈 망민의 노래를 엮어보련다.”고 밝히고 있다. (1951.2.8. 31.2 면에 사교 연재예고, 소개의 말, 한명환 앞의 글, 131쪽, 재인용.)

민족적 주체를 확고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대 국가재건이라는 과업을 부여받게 된 기형적 시기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좌익진영은 토지개혁, 친일청산 문제 등에 있어서 친민중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우익진영에 비해 입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의 의식은 철저한 이념적 검증을 통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작용이 컸다. 이승만은 지지기반과 이념적 토대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이후 단정수립을 통해 스스로의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방직후 국내 정세는 우익진영 보다는 좌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¹²⁾. 이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던 이승만 정권은 전쟁¹³⁾을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써 적극 활용하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적과 아군의 대결국면은 이념적으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사상적 진정성을 증명하길 강제하였다.

적과 아군을 분리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로 발생하게 된 인적·물적 희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동시에 전쟁의 책임과 적을 규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 편가르기의 기준이 된다. 적을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을 환기시켜 여론을 조성하고 공고화하는 전략은 정부와 언론을 통해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상황과 입장은 최소화되고 북, 공산당, 좌익세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야만성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라는 공통분모로

12)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한국과 국제정치』 제6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11쪽.

13)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도구이며 모든 정치적 관계의 계속이며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실행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은 남과 북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하고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다. (클라우제비츠, 허문열 역, 『전쟁론』, 동서문화사, 1981, 50쪽.)

남게 된다.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에 대해 논리와 이성이 아닌 공포와 분노의 감정을 증폭시켜 국민을 자연스럽게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입시켰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이념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가르기와 반공이데올로기 형성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남침도 발을 감행한 북에 대한 규탄과 전쟁의식 고취,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반공텍스트¹⁴⁾는 전시소설과 종군작가단의 작품 이외에 흔하지 않았다.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¹⁵⁾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째 되는 1950년 6월 28일부터 휴전협정이 상정되는 기간까지 이형철과 최나미를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한 피점령지와 대구, 부산 등 피난지, 서부전선과 같은 전장(戰場)에서 겪은 전쟁의 수난기록이라 할 수 있다. 약혼한 사이인 이형철과 최나미는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일상이 파괴되고,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아무래도 큰 재변이 생길 것 같아……』
『도대체 서울은 어찌될 모양인가?』
…… (중략)……

14) 『적화삼삭구인집』(1951)을 비롯한 종군작가단에 의해 창작된 국방부 정훈국간행 『전시 한국문학선-소설편』(1951), 『전쟁문학집』(1951), 김송 편, 『전시문학독본』(계몽사, 1951), 『전선문학』 등이 있다.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참조)

15)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은 대구매일신문에 1951년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연재되었고, 1952년 백영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 1958년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26권 김송·곽하신 편으로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민중서관 출판본을 따르겠다.

국군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군가를 높이 부르며 거리를 통과할 제 사람들은 환송했다. 박수를 쳤다. 만세를 불렀다.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이형철도 「만세」를 부르면서 잘 싸워 주기를 빌었던 것이다.

국군이 가는 곳엔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라…… 계다가 삼팔선에다 철벽같은 방위진지(防衛陣地)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형철은 안심을 하고 회사로 나왔다.¹⁶⁾

출근 후 형철은 회사동료들과 피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직 전쟁의 심각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식량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과 현금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생활의 불편함을 걱정할 뿐이다.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발발 후에도 민간인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동요나 동조보다는 국군에 대한 믿음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형철과 나미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 공산당을 무찌르고 남북을 한나라 만드는 일'을 고대한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약화 일로를 치닫게 되고 피난과 환도, 후퇴와 휴전을 반복하는 역사적 시간 질서에 따라 요동치게 된다.

이들에게 불어 닥친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같은 것이었다. 대비할 수 없었다는 것, 우연처럼 벌어진 일들은 형철과 나미의 운명을 갈라놓고 건강한 청년 남녀는 불구적 삶을 살게 된다. 전장에서 누구보다 선봉에 섰던 형철은 왼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고,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던 나미는 공산군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아이러니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인물의 비극적 상황은 상이군인, 전쟁으로 인한 육체적 폭력을 경험한 일반 독자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비극의 원인을 추궁한다.

16) 김승, 「永遠히 사는 것」, 한국문학전집 26, 민중서관, 1958. 7쪽.

만약 한국도 중국모양으로 공산화한다면-민족성은 차츰 소멸되고 사상적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오십년간 동양의 문화중심지인 중국이 공산화한 이후의 가지가지의 사실이 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것과 같이 일천 구백 오십년 유월이십오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불의 남침도 중공과 동일한 적화공작이다. 이를 테면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공산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란 것은 아등주졸도 알 일이다. 그런데 - 그보다도 저들이 서울로 들어오게 된다면? 첫째로 민족운동자는 모조리 잡아 살해할 것이다. (중략) 그들은 곧 인민재판을(人民裁判)이란 것을 열고 거리에 끌어다니다가 총살이든 다른 무지한 방법으로 학살할 것은 명확하다.¹⁷⁾

북한 공산당의 도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중국의 공산화 결과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북한공산당이 남한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벌어질 민족적 상황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하는 직접적 공포는 개인의 차원에서 극대화 된다. 해방이후 좌익계열에 반대했던 형철과 같은 입장의 민중은 숙청될지 모른다는 직접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형철의 공포감은 '그놈들에게 끌려 다니다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약방에서 '청산가리'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형철이 동생 형순과 나눈 대화에서 '서울을 내놓게 된다면? 그때에는 죽어야지 모두 죽어야 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강요되었던 입장과 다르지 않다.

형철의 공산당에 반대하는 확고한 신념보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반공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환기하는 데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화와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막연한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들

17) 위의 책, 16쪽.

어 비판하고 있다. 형질이 연인인 나미와 동생 형순에게 들려주는 공산당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이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감정이입이 되어 전달되고 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물음과 그것에 대한 근거를 대며 설명해 주는 이야기 방식은 약혼자와 오빠라는 가부장적 위계 속에서 믿을 수 있는 화자의 이야기가 된다.

① 『우리 겨레가 당과 싸움을 하고 모리사업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지난 사오년동안 북한 공산당은 전쟁 준비를 했던 것이요. 쌀을 공출시키고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또한 군대를 확충하고 소련에서 무기를 수입하였지요. 남한에서는 소위 민주정치라하여 공산당을 포섭하고 남북협상(南北協商)만 찾는 동안에 저희들은 남한 침략을 계획하였오. 우리가 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에 저이들은 목을 찌르려고 비수를 갈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요.』¹⁸⁾

② (이제부터 난 피난민이 아니다. 내 몸은 내 한몸이 아니고 나라에 바치는 몸이다. 일찍이 선조가 물려 준 이 육신은 민족의 생(生)을 위해서만 쓰일 때가 왔다. 서울에 계신 어머니도 나를 위해 축복해 줄 것이다. 나미도 나를 격려해 줄 것이다. 나는 간다. —전선으로—)¹⁹⁾

③ -동회 단위로 자위대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지난 삼개월간 지하실과 천장 속에 숨어 살다가, 국군이 들어오고 공산군이 도망치자 거리로 뛰어나온 것이었다. 자위대원들은 부여자(공산군과 협력한 게릴라, 빨치산 등)를 수색해서 경찰에 넘기는데 신바람이 났고, 여기서도 보복과 무고한 희생이 강요되었다.²⁰⁾

개인적 차원에서 공산당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①에서와 같이 남한 내부의 이승만 정권 반대편에 서있는 정치입장을 비판하고, 전쟁의 폭력성을 폭로함으로써 공산당과 동시에 반대세력에 대한

18) 위의 책, 22쪽.

19) 위의 책, 94쪽.

20) 위의 책, 142~143쪽.

견제, 전쟁에 대한 저항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②에서 형철이 직접 전선에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선택은 전쟁의 주체로 '국군'을 소환하고 있다. 또한 ③에서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보복과 무고한 희생'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방점은 처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부역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교사였던 형철이 지식인, 지배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면 나미는 공산당에 의해 철저히 희생당하고 기만적인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목사였던 나미의 아버지는 공산당에 끌려가 인민재판 후 사살당하고, 동생 광현이는 인민군으로 끌려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정신을 놓고 자리에 눕게 된다. 그녀 자신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보살피다 공산당 오열 주몽일에게 능욕당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약혼자 형철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있었지만 육체적 더럽힘으로 떳떳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에도 없이 정란에게 형철을 보낸다. 이 작품에서 가장 철저히 짓밟힌 나미의 인생도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녀의 선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미의 불행 중 하나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독자에게 나미의 비극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며, 독자의 경험과 분노를 환기시켜 북한 괴뢰에 대한 적개심으로 고양된다.

피난 중에 우연히 만난 형철을 사랑하게 된 김정란의 인생도 전쟁의 또 다른 비극을 보여준다. 유부녀였지만 남편 우승진과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던 김정란은 형철을 사랑하게 되고 부상당한 형철에게 필요한 페니실린 오일을 구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 미군 쏘의 양부인이 된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결국 양부인, 양갈보라는 멍에를 평생 짊어

지고 사랑하는 형질 앞에 뒤흔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정란에 대한 형질의 혼란스런 태도는 당시 양부인, 양공주에 대한 분열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전 형질씨도 모멸하는 양갈보가 됐으니까……』

『천만에… 도대체 양갈보란 말이 닿기나한 소립니까. 그들가운데는 생활을 위해 육신을 팔고 그런 길을 밟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조국을 위해 양인과 사귀는 여자들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갈보라는 말부터 틀린 문구입니다. 나는 양부인이라든가, 또는 유엔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란씨 우리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모든 고된내 나는 인습을 일축해야 할것입니다. 세계인이 모두 우리땅에 와서 싸우고 피흘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상을 버리고 세계 인민들과 서로 상충해야 할 줄로 아오.』²¹⁾

형질이 양갈보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보이자 정란은 '민족성', '조상의 피'를 들어 혼혈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형질은 그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해결될 문제로 회피한다. '현재 전쟁 중에 있어서 승리한다는 것만이 전민족에게 부과된 사명이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싸움에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 라는 형질의 발언은 전쟁의 목표는 승리에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을 섬멸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뿐이다. 형질의 태도를 통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양부인에 대한 이중적인 사회적 함의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열된 의식은 정란에 대한 형질, 나미, 미군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 위의 책, 120쪽.

형질보다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철(형질의 친구이자, 한국전선사 신문기자)의 발언은 전시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대변해준다.

『저 **동 인육시장에 가보면 많은 여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통 잔인한 비인간적인 학대 밑에서 고기와 피를 근으로 달아서 야수의 제물로 방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에선 조국방위를 위해서 젊은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용사들이 있는가하면 총후에는 불쌍한 여성들이 암흑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²²⁾

한철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의지를 되찾은 나미는 무위도식하는 삶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불행에 맞서 정면 돌파 하겠다 결심한다.

이 작품에는 네 개의 서사의 축이 있는데, 형질을 대표로 하는 반공이 데올로기의 서사, 나미가 주축이 되는 전쟁의 희생과 극복의 서사, 김정란을 중심으로 미군과 양부인 서사, 주몽일, 우승진 등 공산당 오열(五列)의 서사가 그것이다.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 충돌하고 강화의 과정을 거쳐 '전쟁'에 대한 시대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우승진에 의해 북한 오열이 위장한 三六公司로 유인된 나미가 주몽일과 별이는 설전은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자유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를 강변하고 있다.

『..... 역사적 현실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항거하는 것은 팻쇼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징조야. 공산주의는 조선뿐만 아니라 전세계 근론인민들이 희망하는 거대한

22) 위의 책, 157쪽.

사조란 것을 왜 모르냐는 말이야.』

『그것은 눈을 감기고 아옹하는 격이지요. 맑스나 엥겔스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들은 서울에서 석달동안 당해보고 맛보았으니까. 근로인민을 위해서 조국을 해방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근로인민을 못살게 구는 것이 공산주의란 것이기에 신물이 나도록 경험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지— 즉 혁명으로 가는 길의 한 과정이겠지. 피를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혁명이나 해방이란 없으니까. 노서아 혁명이나 중국의 혁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소.』

『혁명이니 해방이니 당신네들은 말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혁명이나 해방이라고 보지 않아요. 첫째 인간의 존엄(尊嚴)과 자유가 없는 혁명이나 해방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시계의 부속품처럼 인간을 노예화 하는 획일주의(劃一主義) 노예화는 정말 싫어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국가에서 개성을 살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다고 전 확신해요.』²³⁾

‘인간의 존엄’과 ‘노예’, ‘자유’와 ‘획일주의’라는 이분법적 비유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의 피해 당사자인 형철과 나미의 확고한 신념은 독자들에게 희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반공이데올로기의 전파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살기위해 강을 건너다 형철과 나미, 나미 뱃속의 아기까지 죽고 만다는 점은 전쟁의 비극성을 극대화 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형철과 나미가 ‘그 불순한 육체를 정화하는 것, 애정을 깨끗이 살리는 길은, 죽음뿐이란 것을 느끼는 것이다. 살면 살아갈수록 불순해질 것만 같다.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죽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었다.’²⁴⁾는 대목을 통해 그들의 죽음은 인생의 패배나 징벌적 죽음이 아닌 정화의 죽음으로 볼 수 있다.²⁵⁾ 형철은 죽음을

23) 위의 책, 177쪽.

24) 위의 책, 271쪽.

25) 단행본에서는 “폐허의 달” 장에서 두 청춘이 도강에 실패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신문연재본은 “영원히 사는 것” 장에서 ‘원수의 씨를 잉태한 약혼녀의 아이를 지우지

‘약한자의 굴복정신’이라 비판하며 ‘사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강변하였다. 그러나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 후 죽음을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대중의 기대와 조용하게 된다.

도강할 때 죽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겨울을 막 지난 계절적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강을 선택한 것은 평화로웠던 과거,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영원히 사는 방법의 적극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형철 어머니와 나미 어머니의 죽음이 ‘한’이 서린 전쟁의 비극적 종말을 의미한다면, 형철과 나미의 죽음은 사랑의 완성과 정화적 죽음을, 주몽일, 우승진 등 공산당 오열의 죽음은 징벌적 죽음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해 양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의해 점령당한 점령지 서울, 피난지 대전과 부산, 이형철이 가담한 전쟁터 낙동강전선, 수복 후 서울, 1·4후퇴로 머물게 된 피난지 대구, 휴전 후 부산과 서울 등지를 이동하며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형철과 나미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과잉이라는 평가로 문학적 성과에서 평가절하되었지만 형철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선전되고 강요되기 보다는 형철과 나미, 형철과 정란, 정란과 미군 쫓, 한철과 나미, 나미와 주몽일 등 주변 인물들과 대립 혹은 합일의 과정을 통해 ‘전쟁’에 대한 시대인식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은 전쟁문학으로서 반공텍스트와 차이가 나는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연성의 남발, 남녀 인물의 의식의 전환이 모두 ‘사랑’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대중문학으로서 절충적 태도를 보여준다.

얇기로 결심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당시 천주교재단인 신문사의 입장을 배려한 결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한용환, 『한국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과 문학사적 의의 진시 대구경북지역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0, 한국소설학회, 130쪽.

전쟁에 대한 피해와 폭력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대한 논의는 독자 스스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는 가운데 의식의 차원으로 이행되어 성찰과 반성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인물이 직접 현실에 대한 논평자적 보고와 이념적 발언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있는 점은 전쟁 문학의 미학적 완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이념의 과잉 상태를 드러내는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3. 이념의 윤리적 해석, 전쟁의 추상화

- 박영준²⁶⁾ 『愛情의 溪谷』²⁷⁾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과 박영준의 『愛情의 溪谷』 모두 청년남녀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사랑과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인물의 태도와 발언은 차이가 있다.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인물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어 합의에 도달한다면, 박영준의 『愛情의 溪谷』은 주인공

26) 박영준이 1935년 11월 '독서회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후 공산주의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영인, 「박영준 문학과 만주 박영준 문학세계의 연속성 탐구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호, 한국근대문학회, 2011, 17쪽) 박영준의 전기적 자료는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소명, 2008과 『박영준 전집』, 동연, 2002~ 2006, 전 13권을 참고하였다.

27) 박영준, 『愛情의 溪谷』은 1952년 3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28회) 《대구매일신문》에 연재되었다가 서 이듬해인 1953년 중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박영준은 머리말에서 “六·二五 動亂을 民族的 感情으로 消化시켜 보고 싶다는 것은 비단 筆者만의 慾望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特異한 體驗과 느낌이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民族的 傷處로서 三千萬의 가슴속에 各其 바로색여 있는 것이다. 나는 민족의 상처를 통틀어 民族的 受難記로서 『愛情의 溪谷』을 써 보았다.”고 이 책의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다.

연길의 시선으로 전쟁을 관찰하고 있다.

연길과 현주가 사랑을 속삭이다 돌아오면서 마주한 전쟁의 광경은 의심스러운 상황 정도로 그 심각성은 나중에 신문을 통해 감지하게 된다. 그러나 국군과 미군에 대한 확신은 전쟁이 났다하더라도 곧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는 사람 마다가 이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수상스러웠던 것이다.

『북한 괴뢰군들이 삼팔선을 넘었대!』

『벌써 동두천(東豆川)까지 들어왔대!』

연길은 가슴이 서늘했다. 서울 장안에서 떠난 지 몇 시간밖에 안되건만 그 사이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도시 믿어지지 않을었다.

……(중략)……

『그까짓 문제가 돼— 국군이 있는데!』

『미군들은 가만있을라구……!』

……(중략)……

전차에서 내린 연길은 무엇보다도 바쁘게 신문을 한 장 샀다. 그리고는 돈암동행 전차속에서 六·二五사변의 커다란 뉴스를 읽기 시작했다.

북한 괴뢰군의 불법남침사건이 신문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거리의 수군거림이 틀림 없었다. …… 장안 전체가 그야말로 날 리가 일어난 듯 들끓고 있음이 사실이었다.²⁸⁾

연길에게 전쟁의 심각성은 연인인 현주와 연락이 닿지 않고, 쌀값이 소고기 값보다 올랐다는 사실 정도로 인지할 뿐이다. 전쟁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부모님이 먼 친척뻘인 현주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긴박한 상황은 ‘국회에서 수도를 옮길 것을 결정했다는 말이 돌고’ 연길의 동생 정길만 데리고 피난을 떠나면서 시작된다. 괴뢰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군중들은 괴뢰군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를

28) 위의 책, 18~19쪽.

외치며 돌아다닌다. 이들 군중의 모습을 본 연길은 그들이 진심으로 괴뢰군을 환영하기보다 '너무나 급격한 역사적 변동에 넋을 잃고 흘러가는 역사적 사실을 목격하러 나온 듯'²⁹⁾ 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바라보는 연길은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름을 느낀다. 연길은 군중과 자신을 분리하여 관찰자적 시선으로 역사의 현장을 전달한다. 전쟁으로 좌익세력이 서울 점령했을 때 동료교사인 김선생이 보이는 기회주의자적 태도는 연길에게 비굴함으로 인식된다.

「이제는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열을 내서 일을 하십시오」

……(중략)……

그러나 세상이 바뀌자 그 자리에서 좋은 세상이 왔다고 가장 좌익인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결국 그쪽 세상에서도 남처럼 살아 보겠다는 야심의 발로이다.

- 비굴한 인간

연길은 춤이라도 댈어 주고싶었다. ³⁰⁾

그러나 연길은 자신에 대해서도 비굴하다고 느낀다. “비굴 - 확실히 비굴이었다. 김이란 사람에 못지않게 비굴한 자기였다. 그러나 공산독재정치란 사람을 가장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비굴해야 할른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에 대한 연길의 인식은 이데올로기적 이기 보다 감정적인 반응에 가깝다. 전쟁 전 좌익운동을 했던 정인한의 등장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복수’를 할 심산으로 온 것이라 생각하고 불안해한다. ““글쎄 치안대가 뭔가 와서 옆집에서 쌀이니 옷이니 모주리 털어가지 않겠니, 남자야 어찌되었든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은 먹구 살 것을 쥐야지 않아! 참”하고 혀를 몇 번이고 찧다.’³¹⁾ 공산당에 대

29) 위의 책, 50쪽.

30) 위의 책, 53쪽.

한 연길의 비판은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윤리적인 층위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소위 반동했다는 사람에게는 죄를 가릴 사이도 없이 처단해 버리는 그 비인간성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어제까지도 조국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사이에 그야말로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이었다.³²⁾

『인민군은 인민의 군대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을 절대루 보호 할테니 조금두 걱정말라구 아주 그러는데요!』하고 모를 소리라는 듯이 보고했다.

참으로 모를 소리였다. 인민을 위한 군대라면 어찌하여 인민에게 공포와 불안과 증오를 품게 할 것인가!³³⁾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강도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연길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잔인하고도 더러운 세상에 목숨을 불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불쾌했다.³⁴⁾

연길이 전쟁과 좌익 공산당에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공산군의 만행을 직접 독백 처리함으로써 독자의 물음과 오버랩 되고 마치 연길의 답변이 독자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한다. 연길은 전쟁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쟁을 관찰하며 판단할 뿐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전쟁과 공산주의, 공산주의자, 좌익계열 인사는 ‘싫은 것’이다. 그 이유는 비인간적이고 슬픈 일이기 때문이다.

연길의 이러한 감상적 태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길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 초희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죽고 싶다는 나약한 모습으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연길은 문제의 원인, 이유를 묻고 탐색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절망적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연길

31) 위의 책, 64쪽.

32) 위의 책, 61쪽.

33) 위의 책, 63쪽.

34) 위의 책, 70쪽.

의 이데올로기적 발언이 최소화 되고 감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억압적 국면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³⁵⁾ 결국 연길의 퇴행적인 태도는 그가 역설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득력을 퇴색시키고 서사의 역동성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연길과 결혼을 약속했던 현주는 어머니의 중용과 약혼자 임경수의 물질공세에 현실과 타협하며 지내게 된다. 그러던 중 연길을 보호하려다 정조를 유린당한 초희의 상황을 알게 된 현주는 연길에게 초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연길과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도 확인한다. 그러나 현주가 두 번째 피난을 떠난 후, 뒤따라 피난을 가던 연길은 중공군이 참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처지와 절망감에 준비했던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하고 만다. 연길의 죽음으로 연길, 현주, 초희 사이의 애정갈등은 일단락되고, 연길이 한국의 여성상으로 소환 한 '아랑'은 국가재건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남아 재생의 의지를 촉발시킨다. 연길의 죽음은 절망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개돼지처럼 끌려 다니다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평소 연길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인공이 서사의 중간에 죽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결국 서사의 중심이 연길이 아닌, 초희, 현주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초희에게는 현주가 악마의 한 분신(分身)으로 나타났던 것 같지만 해서 견딜 수 없었다.

「어쩌란 말이나? 가졌던 전부를 잃어버린 나에게 이제 또 어쩌란 말이나?」

35) 반공의 담론은 북한체제에 대한 전면부정과 괴물로의 상징조작을 거쳐 이를 보편화시킨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절대적인 명제를 기반으로, 반공의 담론은 국가에 관한 이질적인 (또는 대립되는)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봉쇄한다. (중략) 이데올로기에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순응 방식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유임하, 앞의 글, 67~68쪽.)

하고 발악을 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초희는 문득 아랑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자기에게는 아랑각(阿娘閣)을 받을만한 자격이 영원히 상실되었다. 따라서 아랑의 고훈처럼 광분(狂奔)할 자격마저 없었다.

굴종과 망각만을 미덕으로 삼고 고히 잠들어야하는 외로운 혼이 아닐 수 없는 자기다.

그러나 초희는 문득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좌우로 목을 흔들었다.

『나는 나로서의 생활이 있을 것이다. 더러운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노력이 일생동안 필요하다면 그것을 생활로 삼아야할 것이다.』³⁶⁾

연길과 달리 연길과 현주의 진실한 사랑을 인정하고 떠난 초희는 피난지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의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연길이 소환한 ‘아랑’은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초희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본래 ‘아랑’은 정조 있는 한국여성을 표상하지만 초희에 의해 국가재건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은 희생하는 의지적 여성으로 표상된다.

결국 연길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현주가 아닌 초희가 ‘아랑’의 표상이 됨으로써 새로운 여성상의 도래를 요구하고, 전쟁 발발의 원인과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쟁 이후 피폐해진 삶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전쟁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대한민국의 슬픔이 아닐까요? 저는 현주씨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구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퍼만 마시구 또 살아갈 길을 구해야겠지요.』

……(중략)……

그러나 초희는 우는 대신

『애정을 나눌 때는 서루가 괴로운 것이지만 슬픔을 나눌 때는 서루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서루 위로하며 사십시다.』³⁷⁾

36) 박영준, 앞의 책, 282-283쪽.

37) 위의 책, 366-367쪽.

이 작품에서 '전쟁'에 대한 담론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분노, 공포, 슬픔 등 전쟁 자체의 책임을 북한괴뢰군의 남침으로 본다는 점은 같지만 전쟁에 대한 처벌은 캐묻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인공 연길이가 아닌 초희, 현주, 순일 등 주변 인물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족재건에 힘쓸 것을 역설하고 있다.

최순일이 작곡한 『영광의 곡』에 대한 해설은 최순일의 음악적 재기와 작곡 과정인 동시에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의 제시이다. 연길이가 아닌 순일의 재기는 전쟁으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우리민족에게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영광의 곡』을 작곡한 최순일씨는 이북괴뢰집단 밑에서 민족의 자유와 더부러 예술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월남해 온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민족의 수난기인 六·二五를 당하자 그는 민족의 설움을 가슴에 품고 피난하여 남하 하든 중 불행히도 손마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는 그의 전문인 피아노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예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과 더부러 개인의 슬픔을 정의의 승리로 극복하였습니다. 공산독재의 노예에서 인류를 구하려는 정의의 불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감각속에서 이 『영광의 곡』을 창작하기 시작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과 더부러 전 인류에게 영광을 축하하는 『영광의 곡』을 이제부터 연주하겠습니다.³⁸⁾

이 작품은 연길과 현주, 초희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전쟁을 겪으면서 벌어진 청춘남녀의 애정의 갈등과 전쟁의 피해상을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 묘사와 참상은 연길의 독백적인 의미화 과정에서 희석되고 연길의 감정만 과잉 노출되고 있다. 전쟁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허구성은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고 반공의 당위성만 역설하

38) 위의 책, 375쪽.

는 한계를 드러낸다. 연길의 시선을 따라가는 전쟁에 대한 이해는 단조롭고 표면에만 머물고 있어 서사적 긴밀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는 대중성 확보의 차원에서 본다면 대중은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경험과 감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³⁹⁾, 연길의 슬픔, 두려움, 절망은 독자의 감정을 환기시키고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선택하게 만든다.

4. 이념의 초월과 휴머니즘적 타협

- 홍성유 『悲劇은 없다』⁴⁰⁾

홍성유의 『悲劇은 없다』는 전후 발표된 작품으로 <한국일보> 창간 3주년 기념 현상모집 당선작이다. 앞에서 논의된 두 작품이 전시에 발표된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전후 발표되어 전쟁에 관한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장(戰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성이 살아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전 학원가에서 벌어진 정치적

39) 이데올로기는 '실재 존재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의 표상'이다. '상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개인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선입관, 편견 위에서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은 지도자나 당의 '과학적 이론'에 의해 '의식화' 되어 혁명적 또는 반동적으로 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체험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 『역사연구』제7호, 2000, 113-114쪽.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은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출판사, 1970.; 발리바르, 『비동시시대성: 정치와 이데올로기』, 윤소영 옮김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도서출판 이론,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김정의 앞의 글, 114쪽 재인용)

40) 『悲劇은 없다』는 <한국일보> 창간 3주년 기념 현상모집 당선작으로 1973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혼란과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갈등, 분열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비극성, 폭력성을 초월한 휴머니즘의 추구라는 전후문학의 주제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인 서강욱, 진영, 장도현, 김운애, 석기용을 중심으로 전쟁 전 이념의 혼란이 전쟁의 촉발로 어떻게 증폭되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지 탐색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사는 서강욱, 진영, 장도현 사이의 삼각관계와 서강욱, 진영, 김운애 사이의 삼각관계, 서강욱, 김운애, 석기용 사이의 삼각관계를 주축으로 이들의 관계가 전쟁으로 어긋나고 새롭게 구축되면서 참된 사랑, 휴머니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형상화 하고 있다. 서사의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청춘남녀의 애정의 갈등은 대중소설로서 흥미와 대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드러난 전쟁과 역사 인식은 서강욱의 은사인 박남영 교수에 의해 정리되고 의미화 된다.

한국전쟁 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유학 중이던 서강욱은 자신의 피를 팔아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강욱이 길에 쓰러지고 혈액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진영은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 자존심이 상한 강욱은 영의 호의를 동정으로 생각하고 거절하지만 영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둘은 연인사이가 된다. 그러나 행복도 잠깐 전쟁으로 피난을 떠난 영과 서울에 남게 된 강욱은 돌이킬 수 없는 각자의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

전쟁 전부터 이데올로기에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던 강욱은 고향집 마름의 아들인 석기용과 만난 후 비극적 운명에 휩쓸리게 된다. 좌익 활동을 하던 기용은 강욱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 주는 대신 대학 내 좌익 뼈라를 살포할 것을 종용한다.

뼈라에는 <남북협상> <단독 정부수립 반대>의 활자가 큼직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기용의 무역야? 장사야? 이걸루 내 취직을 하라는 거야?』

분노와 공포와 실망이 뒤엉켜진 속에서 떨고 있는 강욱을 기용은 제지했다.

『소릴 높임 좋지 않아! 이것두 하나의 훌륭한 아르바이트지. 신문배달이나 마 찬가지지만, 그보다는 고급이니까, 내용도 그렇지, 남북을 통일하자는데 누가……?』⁴¹⁾

기용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싫었던 강욱은 충동적으로 뼈라를 강의실에 뿌리고 이를 본 우익진영 학생들에게 잡혀 사상적 추궁을 당하게 된다. 출교위기에 처한 강욱은 지도교수인 박남영 교수의 도움으로 학교에 남아 다시 연구에 힘쓸 수 있게 된다.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나기 전, 지주였던 강욱의 부모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인민재판’ 후 유명을 달리한 터였다. 강욱의 부모는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석기용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강욱은 석기용의 공작에 놀아났던 것이다.

한편 전쟁이 터지자 영은 강욱의 친구 도현과 함께 피난을 가게 되고, 적지하 서울에 남아 있던 강욱은 박교수의 연구논문을 가지러 학교에 갔다가 석기용에게 붙잡혀 결과적으로 은사인 박교수의 밀고자가 되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 강욱은 윤애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함께 지내던 중 자포자기 한 채 인민군으로 끌려가게 된다.

인민군으로 전쟁터에 끌려 다니던 강욱은 박남영 교수가 포함된 북송 포로의 탈출을 돕고, 자신도 인민군을 탈출한다. 강욱은 국군에 합류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석기용을 만나고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보복을 한다. 기용과 강욱은 지주의 아들, 마름의 아들이란 신분차이가 있지만 형제처럼 지냈다. 그러나 전쟁으로 둘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윤애를 마음에 두고 있던 기용은 강욱을 질투의 대상이자 처단해야 할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강욱은 기용의 만행

41) 위의 책, 44쪽.

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때 강욱의 행위는 혈육을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라는 면죄부를 받고,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게 된다. 강욱이 저지른 살인이 용인되는 상황은 한국전쟁이 동족상잔이라는 형제살인에 대한 죄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영은 도현과 피난도중 육체적 관계를 맺고 강욱에 대한 사랑과 도현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9·28수복으로 서울로 돌아 온 영은 도현의 아이를 가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영에게 임신으로 인한 강욱에 대한 죄의식, 사회적 비난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일 죽는 생명이라도 또 하나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나는 저야 한다.』
자기의 생명 속에 살아 있는 또 하나의 생명. 절차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생겨진 생명일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생명으로서 살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 생명에 아버지가 없다 해도 좋다.
그는 이 혼란과 불운 속에서 모든 파괴와 절망을 뚫고 나온 희망의 이름일 수 있다.⁴²⁾

영에게 자신이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영에게 는 과거가 필요 없었다.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⁴³⁾ 영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삶의 의지를 다잡고 자신의 나약한 과거와 결별을 선언한다.⁴⁴⁾ 그러나 딸을 낳고 도현과 재회한 영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도현에 의해 살해되고, 도현은 정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42) 위의 책, 383-384쪽.

43) 앞의 책, 386쪽.

44) 이러한 영의 태도는 김송 〈永遠히 사는 것〉의 공산당 오열의 씨앗이지만 생명으로 인식하는 나미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강욱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중 복부와 안구 관통상을 당해 국군병원에 호송되고, 운애의 간호로 회복하게 된다. 그 후 군의관의 도움으로 박남영 교수와 재회하고, 운애를 진정한 자신의 반려자로 인정한다. 강욱은 운애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생의 의지를 불태우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죽게 된다. 박남영 교수와 남게 된 운애는 자신과 강욱의 아들 승철, 영과 도현의 딸 남희의 보호자가 되어 돌볼 것을 결심한다. 남희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도현도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된다.

『우선 나 자신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그것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 첫 발판이니
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대서 실망할 것도 없지. 자, 여기 자네의 혈육이
있고, 그 혈육에 맡는 또 그 다음 세대가 있고...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지.』

……(중략)……

『오! 내가 못 보면, 남희가 못 보면, 또 그 다음이... 결코 생명이란, 따로이
돌출하는 법이 없는 것!』

도현은 남희의 손을 두 손으로 꼬옥 부여잡으며, 운애를 바라보았다.

의지와 힘이 통하는 시선의 맞부딪침, 도현은 간수에게 이끌려 돌아섰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현의 뒷모습은 결코 초라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절망
속에 광명을 찾아낸 목자(牧者)다운 확신과 법열(法悅)에 차 있었다.

『도현, 그는 죄인이 아냐!』

『죄인이 아냐요.』

운애와 박교수는 마주 바라보았다.

『햇빛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의 혈육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엔 절망이 없
지.』

『네, 절망할 수 없어요. 비극이란 언제나 절망하는 편에만 있는 것이니까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엔 결코 비극이 있을 수 없죠.』

분홍 보에 싸인 남희는 또록또록 사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박교수와 운애는 청사를 나왔다.

파아란 유월의 수목들이 싱싱하게 뻗어나가는 형무소 저편에 붉은 벽돌담이
까마득했다.

『저 벽돌담이 아무리 높아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의욕을 꺾고, 막을 수는 없지.』

박교수는 높다란 벽돌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따사로운 유월의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골고루 비쳐 주었다. 화사하게—⁴⁵⁾

박교수와 윤애가 도현의 딸 남희를 데리고 도현을 면회 가서 주고받는 이 대화는 박교수와 윤애의 휴머니즘적 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작가의 이념을 초월한 휴머니즘적 사유를 짐작하게 한다. 작가는 전쟁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폐허로 남겨두지 않고,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해 생의 의지를 촉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혈육과도 같았던 석기용의 배반과 돌변한 태도는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석기용이 강욱에게 은사를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강욱의 부모를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처단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통해 적과 동지를 확연하게 평가하기를 하고 있다.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이었던 강욱이 스승인 박교수를 배반한 후, 자기 모멸감과 정신적 갈등을 극복하고 군인이 되어 폭력에 맞서 싸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영이 약혼자 강욱이 아닌 도현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생명에 집중하는 태도는 이 작품의 주제가 전쟁의 폭력고발에서 나아가 이념을 초월한 생명주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강욱, 영, 윤애, 박교수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폭력성에 맞서 생명 중심의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 드러난 반공이데올로기는 노골화 되어 묘사되기 보다는 전쟁 발발의 원인을 남침으로 규정하고 적 치하에서 자행 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전쟁의 발발과 후퇴,

45) 앞의 책, 527-573쪽.

수복과정을 구체적인 일시를 밝혀 사실성을 높이고, 전장의 격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자체에만 서사의 중심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애정의 갈등관계는 대중소설로서 재미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오락성이 강화 되고, 상업성이 확대되고 있던 변화된 신문소설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골적인 성묘사나 성적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은 대중소설의 선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서사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⁴⁶⁾

휴전이 되고 전쟁에 대한 자료 확보와 규정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모색된 '전쟁' 담론은 파괴와 비극이 아닌 생의 의지, 생명의식의 회복에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문학의 주제와 맞닿아 있으며, 전쟁문학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전쟁기를 포함 한 전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드러난 지배이데올로기는 신문이라는 공론 장이자 문학 장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구조화 되었다. 대중성 확보라는 매체적 특성은 오빠, 교사, 은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대화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 인물의 발언은 계몽적이고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46) 이 작품에는 남녀의 삼각관계가 다각화 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성묘사는 대중소설로서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1958년 이후 신문법의 개정으로 신문지면의 확대와 판매를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신문사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 후 반공이데올로기는 민족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자,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작동원리로 자리 잡았다. 개인에게 전쟁 중 체험한 비극은 존재의 한계와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작품에는 '전쟁'과 '재건'에 대하여 대립되는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자 폭력의 고발인 동시에, 새로운 국민의 재편과 민족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 박영준의 『愛情의 溪谷』이 전쟁 발발 직후부터 휴전협상이 이루어지는 일 년 정도의 기간을 배경으로 청춘 남녀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전쟁을 폭로하고 있다면, 홍성유의 『悲劇은 없다』는 전쟁 전부터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의 대립과 사회적 혼란상은 물론 이념을 초월한 휴머니즘의 회복이라는 전후문학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북한괴뢰군의 만행과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폭력, 무고한 소시민의 희생과 박해 등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 좌익세력에 대한 묘사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악의 축,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들과 맞서는 인물은 전쟁으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인식하거나 대응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김송의 『永遠히 사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양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점령지 서울, 피난지 대전과 부산, 대구 등 비참한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특정 인물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주 인물과 주변 인물들과 대립 혹은 합일의 과정을 통해 '전쟁'에 대한 시대인식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은 전쟁문학으로서 반공텍스트와 차이가 나는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연성의 남발, 남녀 인물의 의식의 전환이 모두 '사랑'의 이름

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대중문학으로서 절충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피해와 폭력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대한 논의는 논평자적 보고와 이념적 발언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문학의 미학적 완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이념의 과잉 상태를 드러내는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박영준의 『愛情의 溪谷』은 연길과 현주, 초희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전쟁을 겪으면서 벌어진 청춘남녀의 애정의 갈등과 전쟁의 피해상을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대중성 확보 차원에서 대중은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경험과 감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연길의 슬픔, 두려움, 절망은 독자의 감정을 환기시키고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독자 대중과 자연스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홍성유의 『悲劇은 없다』에서는 적 치하에서 자행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통해 복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의 발발과 후퇴, 수복과정을 구체적인 일시를 밝혀 사실성을 높이고, 전장의 격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자체에만 서사의 중심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애정의 갈등관계는 대중소설로서 재미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오락성이 강화되고, 상업성이 확대되고 있던 변화된 신문소설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골적인 성묘사나, 성적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은 대중소설의 선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서사적 흥미를 높여준다.

휴전이 되고 전쟁에 대한 자료 확보와 규정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모색된 '전쟁' 담론은 파괴와 비극이 아닌 생의 의지, 생명의식의 회복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문학의 주제와 맞닿아 있으며, 전쟁문학

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문장편소설에 드러난 전쟁문학으로서의 특성은 첫째,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그들의 비극이 전쟁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양한 인물의 희생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저히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인물의 '죽음'을 형상화 할 때 아군의 희생과 적의 징벌이라는 수사학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둘째, 아군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인물은 오빠, 교사, 교수, 재건에 앞장 서는 인물 등으로 그들의 발언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설득적이고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적군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묘사되어 독자 대중에게 공감과 반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여성인물의 경우 전쟁을 경험한 후 남녀 간 사랑과 개인적 차원의 안위추구에서 인류애적 사랑과 국가 재건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가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들 여성을 통해 발현되는 휴머니즘은 당시 정치적 기획과 맞물려 국가재건을 위한 계몽적 구호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여성인물이 전쟁 중 육체적 훼손을 당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자각하게 된다는 점은 이념을 초월한 휴머니즘적 타협으로 볼 수 있다.

신문소설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시의성의 측면에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다루어 당시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불안, 이데올로기 갈등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에 나가 불구가 되어 돌아 온 상이군인, 전쟁미망인, 전쟁 통해 육체를 훼손당한 여인, 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등등 당시 대중독자가 경험하고 갈등하고 있

을 만한 이야기를 다루고 상황별 인물들의 선택에 따라 공감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서사의 계몽성은 익숙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과 대화방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창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토론과 학습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통해 상황에 맞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따르고 있는 시대에 아들, 오빠, 선생님의 발언은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갖는다.

셋째, 대중성은 청춘남녀의 애정의 갈등을 기본 서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애정의 엇갈림, 오해와 화해, 서로에 대한 그리움 등은 독자 대중의 흥미와 몰입을 증폭시키고 연재소설의 특성상 다음 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1950년대 후반 신문법의 개정으로 지면이 확대되고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이라는 신문사 운영의 변화와 맞물려 성적 묘사를 노골화하고 선정성을 강화하는 경향은 신문연재소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우연성의 남발, 인과응보 식 결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죽음으로 처리하는 안이한 결말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발발 혹은 전쟁 자체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본질적 폭력성을 외면한 채, 적의 비윤리적, 비인간적 현상에 집중하여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시키는 것은 신문소설의 미학적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송, 『永遠히 사는 것』, 한국문학전집 26, 민중서관, 1958.
박영준, 『愛情의 谿谷』, 중앙출판사, 1953.
홍성유, 『悲劇은 없다』, 三省新書, 1973.

2. 논문 및 단행본

- 강정구,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전쟁의 통일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통일로』, 『경제와 사회』 제48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0, 230~266쪽.
강정구,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1,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원, 월인, 2005.
강진호, 『한국 반공주의 소설 사회학적 기능』, 『한국언어문학』 52집, 한국언어학회, 2004, 313~344쪽.
고은, 『1950대』, 민음사, 1973.
김교봉, 『한국전쟁기 장편소설연구 <영원히 사는 것>의 작가의식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1,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53~187쪽.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김문수, 『한국전쟁기 소설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1997.
김미향, 『1950년대 한국전쟁소설에 나타난 전쟁과 일상성의 상호침투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481~505쪽.
김영희, 『한국전쟁기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10, 205~227쪽.
김정,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 『역사연구』 제7호, 역사학연구소, 2000, 111~147쪽.
김준현,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8.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
김환봉, 『한국전쟁소설의 서사적 인식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대중문화연구회(편),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문종호, 『1950년대 한국소설의 주제형상화 방법 연구』, 대구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01.
박병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戰後) 문학 매체의 현황과 성격연구』, 『어문논총』 제5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41~273쪽.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1880~1970』, 해돋이, 1993.

- 서동수,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20, 한국현대문학학회, 2006, 79~110쪽.
- 신경득, 『한국전후소설연구』, 일지사, 1983.
- 신영덕, 『한국전쟁기 중군작가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오카 마리, 『기억·서사』, 소명출판사, 2004.
-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반공텍스트의 기원과 유통, 1950년대 소설의 왜곡』, 『현대소설연구』25, 한국소설학회, 2005, 55~75쪽.
- 유임하, 『한국 소설의 분단이야기』, 책세상, 2006
-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봄호, 1992, 139~150쪽.
- 유철상, 『한국전쟁의 체험과 전후문학의 동시적 질서』, 『현대소설연구』45, 한국소설학회, 2010, 35~60쪽.
- 윤효녕, 『주체개념의 비판』, 서울대출판부, 2003.
-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제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61~305쪽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30, 상허학회, 2010, 397~454쪽
-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15, 상허학회, 2005, 49~98쪽.
- 이봉일, 『전후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상원,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장은미,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지아, 『한국전쟁의 특수성이 한국 전후소설에 미친 영향』,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최강민, 『서설: 문학제도와 정전의 계보학적 지형도 -해방 이후부터 1970년까지』,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성격에 관한 연구』, 『원우론집』16, 연세대학교 대학원 춘학생활, 209~236쪽.
- 한명환, 『한국전쟁기 대구경북지역 신문 연재 수기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나타난 탈식민적 양상』, 『로컬리티 인문학』6, 2011, 245~273쪽.
- 한명환, 『한국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과 문학사적 의의-전시 대구경북지역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0, 한국소설학회, 127~150쪽.
-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연구(下)』, 국학자료원, 1999.
- 홍석률, 『민족분단과 6·25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24호, 2006, 37~50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War' and
'Anti-communist ideology' of the serial story
in newspaper in the 1950s
— focused on Kim Song's <Living for eternity>, Park Young Jun's <Valley of Love>,
Hong Sung Yoo's <There is no tragedy> —

Jang, Mi-Young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which is a mainstay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in the fifties, after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th, 1950. This study will deal with three in particular that generally foregrounds the Korean War: Kim Song's <Living for eternity> (<DaeguMaeil>1951.9.1~12.8 published), Park Young Jun's <Valley of Love> (<Daegu Maeil>1952.3.1~7.17 published), Hong Sung Yoo's <There is no tragedy> (<Hankook Ilbo>1957.5.7~12.2 published). Through these, the study will discuss the process of anti-communist ideology becoming the dominating ideology through the arguments of war, and how the connection to the author's consciousness converges into the national implication on the Korean War.

The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industry that collude with government power cannot help but put newspaper fiction in a direct influenti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special circumstance called a war,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a media called a newspaper, the regulation of the Korean War by the Lee Seung Man regime as a provocation by the North was then perceived as a public opinion, and through the newspaper, must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guments on war. In these literary works, protagonists with positions of teachers and professors strengthen anti-communist ideology through commentary editorials and signific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In the midst of calling attention to the public reader's experiences, they induce them to voluntarily come to an agreement.

The characteristics as a war literature shown in these three newspaper fictions denounce the unreality and the violence of ideology through war, and share the

universality of exposing a person's tragic life sacrificed because of war. The attitude towards war reproduces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that the North is no longer a part of the Korean race, or a brother of ours, but an enemy based on the responsibility that lays on the provocation of the North, and the puppet government of the North that savaged lives. The character's persuasive editorials and emotional reactions arouse the public reader's anti-communist ideology and make them spread it. The media's characteristic known as the newspaper fiction can be found through the securing of popular appeal and choosing complacent endings, or applying sexually suggestive content, timeliness, etc.

(Key Words : a serial newspaper story, Korean War, anti-communist ideology, newspaper media, public sphere)

투고일 : 2012년 4월 30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5월 10~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6월 8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6월 11일 게재확정